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성향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upervision Experiences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n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of Child Counselors

차 지 은*
솔샘나우리아동복지센터
Cha, Ji-Eun
Solsamnawoori Children's Welfare Center

김 현 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Hyun-Soo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comparative effects of supervision experiences versu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n child counselor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CM) abilities. A total of 106 child counselors practic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reas completed the Career/Training Experiences Survey,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Scale and 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upervision experiences and the 4 CM abilities (self-integration, empathy, anxiety management, and conceptualization skills) as well as between independent-responsible, empathic-acceptable, and sociable-friendly dispositions and all 5 CM abilities. On the other hand, nega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resistant-distrustful disposition and self-integration and anxiety management CM abilities. Next, the comparative influences of supervision experience vs.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in the prediction of each of the 5 CM abilities were examin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the 5 CM abilities suggest that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the child counselor are stronger predictors of CM abilities than supervision experiences. Clin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components of supervision that could help improve child counselor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are discussed.

주제어(Keywords) : 아동상담자(Child Counselor), 수퍼비전 경험(Supervision Experience), 대인관계성향(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역전이 관리능력(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 솔샘나우리아동복지센터(E-mail: hiero46@naver.com)

**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E-mail: khs1004@hanyang.ac.kr)

I. 서론

정신건강 및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담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 효과성을 보다 다양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려는 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서정은, 최경환, 김창대, 2015; Kivlighan, Gelso, Ain, Humme & Markin, 2015). 이 중 상담자와 관련한 변인은 상담 과정 및 그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담 효과성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남희, 2008; 박수영, 최한나, 2013; 장재홍, 권희경, 2002; Wampold, 2000). 특히,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역전이는 상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강소영, 한미선, 황숙양, 2008; 윤희섭, 정현희, 2012; 이영순, 2010; 임고운, 김지현, 2008; Friedman & Gelso, 2000; 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Freud(1910)에 의해 처음 언급된 개념인 역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무의식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다. Freud는 역전이를 부정적 요소로 간주하였는데, 치료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상담자가 자기 분석을 통해 최소화하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Peabody & Gelso, 1982). 한편, 역전이는 Freud 이후 등장한 학자들에 의해 보다 질층적 의미와 특성을 가진 개념으로 변모하게 되는데(Blanck & Blanck, 1979), 이 입장에서 역전이는 상담자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욕구로 인해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 가지는 반응으로 개념화되었고 상담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면 상담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Gelso & Carter, 1994).

역전이에 관한 긍정적 접근에 근거하여, Hayes, Gelso, Van Wagoner와 Diemer(1991), Hayes, Riker와 Ingram(1997),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는 역전이 반응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상담자 능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Van Wagoner 등(1991)은 역전이 관리능력을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의 5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상담자가 이들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담 과정에서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을 나타내지 않으며, 비효과적인 역전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를 보다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은 역전이를 다루는 상담자의 능력이 상담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임고운, 김지현, 2008; 장세미, 1999; 한은주, 최한나, 2013; Gelso, Latts, Gomez, & Fassinger, 2002; Robbins & Jolkovski, 1987).

하지만 기존의 역전이 관리능력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성인 상담자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성인과 아동 상담을 따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상담 대상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특성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아동상담자가 마주하게 되는 역전이의 독특한 측면을 간과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 교육 및 훈

련의 제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은 성인상담자와 대비되는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Abbate(1964)와 Showalter(1985)는 아동청소년 정신의학에서 역전이의 질이나 강도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아동 내담자들이 가진 그들만의 독특함은 역전이 과정 자체도 독특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동 내담자 및 아동 상담의 독특성으로, 먼저 아동 내담자는 발달 특성 상 언어보다 행동적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담 중 예측불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상황에서 좌절이나 퇴행의 가능성이 높다(Gabel & Bemporad, 1994)는 특성이 있다. 또한 아동의 부모는 성인 내담자보다 치료 과정에 훨씬 더 자주 관여하며, 이로 인해 상담자는 내담 아동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내담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Rasic, 2010). 따라서 아동상담자는 아동과 상담을 진행할 시 어린 내담자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아동에 대한 태도를 아동 부모에 대한 태도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상담자 역전이 관리능력에 해당하는 능력으로, 상담자는 아동상담자로서 적절한 역전이 관리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Waksman, 1986).

이렇듯 아동상담자로서 적절한 역전이 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동상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전이 관리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아동상담자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Bandura(1956)가 지적했듯이 상담은 대인관계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담자 특성은 역전이 관리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담자 요인은 크게 전문적 특성과 인격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이 중 상담자 전문적 특성으로 대표적인 것이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이다. 수퍼비전에 대해 Bernard와 Goodyear(2014)는 경험이 많은 선배 상담자가 후배 혹은 동료 상담자의 상담 수행을 평가하고, 상담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toltenberg와 Delworth(1987)는 수퍼비전이 상담자의 상담기술 및 이론 증진뿐 아니라 자신 및 타인 인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Haynes, Corey와 Moulton(2003)은 임상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가 수퍼바이저의 상담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수퍼비전을 정의하였다. 이들 정의를 종합해 보면 수퍼비전 과정은 상담자로 하여금 상담 과정에서 자신과 내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입을 시도하도록 돕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절차와 훈련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 향상에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실제로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이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신교숙, 2001; 이정숙, 양정화, 2009; 장세미, 1999).

한편, Jung(1964)은 상담자가 가진 상담

기술보다도 상담자의 성격과 태도가 상담효과를 높이는데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상담자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내담자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앞서 Bandura(1956)가 주장한 바대로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 특수한 대인관계 상황이며, Heider(1964)는 이와 같은 대인관계가 개인이 타인에 의해 반응하게 되는 어떠한 감정과 생각, 타인에 대한 지각 및 그에 따른 행위, 타인에 대한 기대 등을 나타내는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담자가 가진 대인관계적 성향은 상담자-내담자 간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Peabody와 Gelsso(1982)는 그들의 연구에서 상담자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역전이 행동과 역전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상담자의 대인관계성향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강차연, 2008; 김경옥, 2003; 박희현, 2010; 이지영, 2011; 차지은, 2012).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과 인격적 특성은 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역전이 관리능력에 아동상담자의 전문적 특성과 인격적 특성 중 어떤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상담의 효과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중심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으로 수퍼비전 경험을, 인격적 특성으로 대인관계성향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고, 수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성향의 두 요인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전이 관리능력의 각 하위 요인에 따라 아동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인격적 특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 향상을 돕고, 나아가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 유용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 대인관계성향, 역전이 관리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 경험, 대인관계성향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전문 아동상담기관, 복지관 및 병원 내 상담실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상담하고 있는 아동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질문지는 각 기관이나 개별로 우편 배송되거나 전자 우편을 통해 배부되었으며, 연구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n=106)

변인	구분	n (%)	평균(표준편차)	중앙치
성별	남	1 (0.9)		
	여	105 (99.1)		
근무지	전문 아동상담기관	60 (56.6)		
	복지관 소속 상담실	19 (18.3)		
	병원 상담실	17 (16.3)		
	기타	10 (9.6)		
학력	학사	6 (5.7)		
	석사과정	38 (35.8)		
	석사졸업	43 (40.6)		
	박사과정 이상	19 (17.9)		
자격증	미소지	57 (53.8)		
	자격증 소지	49 (46.2)		
연령			33.18(7.41)	30.00
상담 경험(개월)			47.02(37.70)	36.00
수퍼비전 경험(횟수)			29.65(31.08)	20.00

참여에 동의한 아동상담자 106명이 자기보고식으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근무지, 학력, 자격증 소지 여부(상담관련), 연령, 상담 경험, 수퍼비전 경험 등의 특성들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상담 경험은 상담 기간(개월 수)으로, 수퍼비전 경험은 수퍼비전을 받은 횟수로 측정하였다.

2. 연구도구

1)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은 아동상담자들이 수퍼비전을 받은 횟수를 직접 기록

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및 경력·훈련 정도에 관한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상담자들의 평균 수퍼비전 횟수는 29.65($SD=31.08$)회로 나타났으며, 최저치는 0회(5.7%), 최고치는 180회(0.9%)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성향 척도

아동상담자의 대인관계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Leary(1957)의 대인관계 원형 모델과 Krech, Crutchfield와 Ballachey(1962)가 주장한 대인적 반응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5)가 재구성한 대인관계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성향이 역할 성향,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으로 구성되고, 각 성향에 따라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도취적, 반항적-불신적 성향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적-우월적 대인관계성향은 타인에게 지시하고 충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예. 남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잘한다). 독립적-책임적 성향은 자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있으며, 책임의식이 철저하고 모범적인 성향을 나타낸다(예. 남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일을 수행한다). 동정적-수용적 성향은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타인에 대한 민감성과 포용력이 있는 경향을 의미한다(예. 실수로 당황하는 친구를 보면 그를 격려해주고 안심시켜 준다). 사교적-우호적 성향은 개방적이고 타인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낙천적이고 협조적인 경향을 나타낸다(예.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잘 한다). 경쟁적-공격적 성향은 자기 싫어하고, 비판적이며 논쟁적 성향을 의미한다(예.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지고 싶지 않다). 과시적-도취적 성향은 자기자랑을 잘 하며, 지나치게 도취적, 즉흥적 성향을 나타낸다(예.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집안일이나 나의 자랑을 한다). 또한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은 불평, 불만이 많고 타인을 배타적으로 경계하며, 고립적인 성향을 의미한다(예.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대인관계성향의 각 하위요인들은 각각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거의 언제나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에 따른 점수가 높으면 해당 영역의 대인관계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적-우월적 성향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61, 독립적-책임적 성향 .69, 동정적-수용적 성향 .69, 사교적-우호적 성향 .75, 경쟁적-공격적 성향 .77, 과시적-도취적 성향 .71, 반항적-불신적 성향 .67로 산출되었다.

3)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 측정을 위해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가 개발한 역전이 요인 도구(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를 장세미(199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통찰은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의 근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예. 내담자로 인해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자주 지각한다), 자기통합은 상담자가 심리적 건강과 안정된 정체성, 타인과의 적절한 경계를 가지며, 내담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예.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갖고 있다). 공감능력은 타인의 경험에 대한 지적 이해능력이자, 상대의 입장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의미하며(예. 적절한 시기에 내담자의 정서적 경험으로부터 한발 뒤로 물러나 내담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불안관리는 상담자가 자신의 일반적 불안 및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경향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예. 상담하는 동안 심한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다). 또한 개념화기술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과거 맥락을 통해 내담자의 역동을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예. 내담자의 과거에 비추어서 관계역동을 개념화한다).

척도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하위요인에 따른 점수가 높으면 해당 영역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찰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76, 자기통합 .77, 공감능력 .85, 불안관리 .81, 개념화기술 .82로 각각 산출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먼저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 대인관계성향, 역전이 관리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수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성향 중 역전이 관리능력의 각 하위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대인관계성향의 파악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 대인관계성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관관계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성향,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변인 간 상관 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한 바대로, 수퍼비전 경험은 역전이 관리능력 중에서 자기통찰을 제외하고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 차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각각 $r=.29, p<.01$; $r=.25, p<.01$; $r=.25, p<.05$; $r=.34, p<.001$). 이는 아동상담자가 수퍼비전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안정되고 건강한 성격구조를 가지고 자신과 내담자 사이에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며, 내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담과정이나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인식하거나, 내담자의 역동을 개념화하는 기술이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대인관계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에서는 독립적-책임적 성향과 동정적-수용적 성향이 역전이 관리능력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all $ps<.01$). 이는 아동상담자의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대인관계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사례개념화 능력이 모두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교적-우호적 성향은 역전이 관리능력 중 자기통찰을 제외

<표 2>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 대인관계성향,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관관계 (n=10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수퍼비전 경험	-												
2. 지배적-우월적	.05	-											
3. 독립적-책임적	.21*	.24*	-										
4. 동정적-수용적	.08	.02	.20*	-									
5. 사교적-우호적	-.03	.14	.20*	.42***	-								
6. 경쟁적-공격적	-.08	.66***	.11	-.08	.23*	-							
7. 과시적-도취적	-.02	.49***	.15	.17	.48***	.48***	-						
8. 반항적-불신적	.05	.49***	.04	-.14	-.10	.45***	.21*	-					
9. 자기통찰	.12	-.04	.29**	.37***	.12	-.01	.11	-.10	-				
10. 자기통합	.29**	.04	.44***	.30**	.27**	-.08	.06	-.26**	.61***	-			
11. 공감능력	.25**	.17	.52***	.44***	.29**	.04	.12	-.05	.63***	.75***	-		
12. 불안관리	.25*	-.00	.38***	.25**	.35***	-.03	.04	-.26**	.34***	.73***	.59***	-	
13. 개념화기술	.34***	.11	.47***	.34***	.25*	.09	.11	-.13	.65***	.72***	.83***	.58***	-
평균	29.65	2.36	2.97	3.27	3.29	2.27	2.65	2.12	3.47	3.51	3.45	3.39	3.34
(표준편차)	(31.08)	(.31)	(.37)	(.36)	(.44)	(.45)	(.38)	(.34)	(.39)	(.38)	(.40)	(.48)	(.46)

*** $p < .001$, ** $p < .01$, * $p < .05$

한 나머지 네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5 \sim .35$, all $p < .05$), 이는 아동상담자의 사교적-우호적 대인관계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반항적-불신적 성향은 자기통합, 불안관리와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는데(각각 $r = -.26$, $p < .01$), 이는 아동상담자가 반항적-불신적 경향이 높으면, 견고한 자아를 가지고 내담자와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낮으며, 상담자가 자신의 불안 특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2.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 성향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 성향이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퍼비전 경험을 단계 1에, 7개 대인관계성향 하위차원들을 단계 2에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 역전이 관리능력 각각을 예측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퍼비전 경험이 투입된 단계 1에서는 역전이 관리능

〈표 3〉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n=106)

준거변인	예측변인	단계 1		단계 2		ΔR^2	F
		B	β	B	β		
자기통찰	수퍼비전 경험	.00	.12	.00	.06	.20**	3.37**
	지배적-우월적			-.25	-.20		
	독립적-책임적			.26	.25*		
	동정적-수용적			.38	.35**		
	사교적-우호적			-.13	-.15		
	경쟁적-공격적			.10	.12		
	과시적-도취적			.14	.13		
	반항적-불신적			-.07	-.06		
자기통합	수퍼비전 경험	.00	.29**	.00	.22*	.28***	6.94***
	지배적-우월적			.16	.13		
	독립적-책임적			.34	.34***		
	동정적-수용적			.10	.11		
	사교적-우호적			.14	.16		
	경쟁적-공격적			-.05	-.06		
	과시적-도취적			-.05	-.05		
	반항적-불신적			-.32	-.28**		
공감능력	수퍼비전 경험	.00	.25**	.00	.15	.35***	8.66***
	지배적-우월적			.16	.12		
	독립적-책임적			.42	.39***		
	동정적-수용적			.34	.30**		
	사교적-우호적			.09	.10		
	경쟁적-공격적			.00	.00		
	과시적-도취적			-.08	-.08		
	반항적-불신적			-.08	-.07		
불안관리	수퍼비전 경험	.00	.25*	.00	.21*	.28***	6.20***
	지배적-우월적			.07	.04		
	독립적-책임적			.36	.28**		
	동정적-수용적			.06	.04		
	사교적-우호적			.34	.31**		
	경쟁적-공격적			.06	.05		
	과시적-도취적			-.18	-.14		
	반항적-불신적			-.38	-.27**		

〈표 3〉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n=106$) (계속)

준거변인	예측변인	단계 1		단계 2		ΔR^2	F
		B	β	B	β		
개념화기술	수퍼비전 경험	.01	.34***	.00	.28**	.12***	13.71***
	지배적-우월적			-.02	-.01		
	독립적-책임적			.43	.35***		
	동정적-수용적			.27	.22*		
	사교적-우호적			.06	.06	.27***	7.54***
	경쟁적-공격적			.20	.20		
	과시적-도취적			-.06	-.05		
	반항적-불신적			-.27	-.20*		

*** $p < .001$, ** $p < .01$, * $p < .05$

력의 자기통찰을 제외한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단계 1에 투입된 수퍼비전 경험은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 능력변량의 8%, 6%, 6%, 12%를 각각 설명하였으며(단계 1의 ΔR^2 s=.08, .06, .06, .12, all p s<.05), 자기통찰의 예측에서는 2%로 유의미한 통계적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단계 1의 ΔR^2 =.02, m). 단계 2에서 아동상담자의 지배적-우월적,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경쟁적-공격적, 과시적-도취적,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 성향이 투입되었을 때, 역전이 관리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분이 나타났다. 대인관계성향은 공감능력에서 전체 변량의 35%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단계 2의 ΔR^2 =.35, $p < .001$), 자기통합, 불안관리, 개념화기술, 자기통찰에서 각각 전체 변량의 28%, 28%, 27%, 20%를 추가로 설명하

였다(단계 2의 ΔR^2 s=.28, .28, .27, .20, all p s<.0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전이 관리능력의 자기통찰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요인들에 독립적-책임적 성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β =.25~.39, all p s<.05). 반면 자기통찰에는 독립적-책임적 성향(β =.25, $p < .05$)에 비해 동정적-수용적 성향(β =.35, $p < .001$)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정적-수용적 성향은 역전이 관리능력의 공감능력, 개념화기술, 자기통합에 영향력을 나타내었다(β =.22~.35, all p s<.05). 또한 사교적-우호적 성향(β =.31, $p < .01$)은 불안관리에만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은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 중 자기통합,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에서 영향을 나타냈다(각각 β =-.28, $p < .01$; β =-.27, $p < .01$, β =-.20,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인 수퍼비전 경험과 개인적 특성인 대인관계성향 간 관계의 탐색을 통해, 이들 요소들의 아동상담자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 훈련적 개입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결과들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아동상담자의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은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의 예측에 있어 개인적 특성인 대인관계성향이 전문적인 특성인 수퍼비전 경험에 비해 더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결과이다. 위의 연구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은 역전이 관리능력의 자기통찰을 제외하고, 개념화기술에서 12%, 자기통합 8%, 공감능력 6%, 불안관리 6%의 유의한 설명량을 보였으며, 자기통찰을 제외한 네 가지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예측함에 있어 이러한 수퍼비전 경험을 넘어서는 대인관계성향의 설명 증분은 공감능력에서 35%, 자기통합 28%, 불안관리 28%, 개념화기술 27%, 자기통찰 20%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대인관계성향은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의 모든 역전이 관리능력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사교적-우호적 성향은 자기통찰을 제외한 네 가지 역전이 관리능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반항적-불신적 성향은 자기통합, 불안관리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상담자의 독립적-책임적, 동정적-수용적, 사교적-우호적, 반항적-불신적 대인관계성향은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주요한 개인 특성임이 시사되었다. 이는 관련 선행 연구들(강차연, 2008; 김경옥, 2003; 이지영, 2011)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 성향들이 역전이를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아동상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격적 특성임을 나타내준다.

한편,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해 전문적 특성인 수퍼비전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동상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수퍼비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퍼비전 경험이 단독으로 투입되었을 때는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의 자기통찰을 제외한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였으나, 수퍼비전의 효과를 통제 한 후에 아동상담자의 개인 성격적 특성인 대인관계성향이 투입되자 역전이 관리능력에 아동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이 더욱 큰 상대적 기여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전이 관리 능력의 자기통찰에는 아동상담자의 개인적 측면이 영향을 미치나, 수퍼비전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퍼비전이 자기통찰에 필요한 상담자의 성찰능력 함양에는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도와 실태, 만족도 연구(송은화, 정남운, 2005)에서도 숙련 상담자들의 ‘상담자의 자기 알아차림’, ‘상담자 자기에 대한 이해’ 등의 항목에 대한 요구는 수퍼비전을 통한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추해볼 때, 앞으로의 수퍼비전에서는 아동상담자가 개인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역전이 관리능력의 공감능력에 수퍼비전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상담자의 대인관계성향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자, 개인 성격적 특성만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상담자가 스스로 평가하는 공감능력과 실제 상담 장면에서 표현되는 공감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의 공감 유형을 연구한 송재영, 이운주(2014)에 따르면 경력과 수퍼비전 경험이 높은 경력상담자의 경우 초심상담자에 비해 공감반응 비율이 높고, 공감의 여러 하위 유형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많은 초심상담자들은 스스로의 공감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감능

력에 대한 개념이 수퍼비전 등의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표현적이고 조력적인 의미로는 확장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아동상담자의 공감능력에 성격적 측면이 수퍼비전 경험에 비해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수퍼비전 내용 구성에서는 아동상담자가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공감 반응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공감 표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훈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역전이 관리능력의 자기통합에는 수퍼비전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만, 아동상담자의 성격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박운원, 2017; 이정숙, 양정화, 2009; 장세미, 1999)에서도 수퍼비전 경험이 상담자의 자기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어, 수퍼비전이 아동상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상담자로서의 역할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상담자의 성격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동상담자의 불안관리에 있어서도, 수퍼비전의 영향력은 자기통합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불안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박운원(2017)은 전문상담교사의 수퍼비전 경험이 불안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정숙, 양정화(2009)는 놀이치료자의 개인 수퍼비전 횟수나 기간이 불안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음악치료사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수퍼비전 횟수가 불안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이희진, 2009), 미술치료사의 수퍼비전 경험도 불안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채연, 2011), 더불어 송가영(2014)도 청소년 상담자의 수퍼비전 경험이 그들의 불안이나 불안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관리에 있어서 수퍼비전이 성격적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다양한 상담 배경을 가진 상담자를 대상으로 수퍼비전 경험과 불안관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그 결과가 비일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의 수퍼비전 현장에서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이 상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반적 불안 특성을 파악하고 돕는데 다소 제한적 효과를 나타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아동상담자가 가진 개인적 성격 특성을 고려하는 수퍼비전 프로그램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퍼비전 경험은 역전이 관리능력의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개념화기술 영역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니지만 일반 상담영역에서 상담자들이 내담자 문제 평가나 내담자 호소문제 파악, 치료목표 수립과 처치 계획 등과 같은 사례개념화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연구들(김계현, 문수정, 2000; 송은화, 정남운 2005)로 미루어보아, 상담자들이 내담

자와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그들이 가진 문제의 성격과 그 원인에 대한 일련의 가설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퍼비전 시에도 사례개념화와 관련한 훈련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와 유사하게 신교숙(2001), 이정숙, 양정화(2009)의 연구에서도 놀이치료사들의 수퍼비전 경험이 역전이 관리능력의 다른 요인들에 비해 개념화기술 요인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아동상담자들을 위한 수퍼비전 수행 시에 상담 사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의 전문적 교육은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현수, 차지은(201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의 아동상담자 대상의 수퍼비전 내용이 다소 개념화 기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훈련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수퍼비전의 영향력은 아동상담자의 대인관계성향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성격 특성의 영향력과 비교하여 그 상대적 힘이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퍼비전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더욱 전문성이 강화된 훈련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동상담자를 위한 수퍼비전은 어떠한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퍼비전에 대한 내용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상담자

가 슈퍼비전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 지, 특히 회기별 혹은 상담 시기별(초기, 중기, 종결기 등)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 등을 분석하여 슈퍼비전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슈퍼비전이 아동상담자의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 등 역전이 관리능력의 각 하위요인을 아우르는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Holloway와 Neufeldt(1995)는 슈퍼비전의 효과성이 슈퍼비전 이후에 나타나는 내담자의 변화, 슈퍼바이저의 태도, 기술, 신념 등의 변화, 상담자의 역할 수행능력의 변화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성경 등(2004)이 논한 바대로, 슈퍼비전이 ‘본래적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일은 아동상담자를 위한 슈퍼비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슈퍼비전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아동상담 슈퍼비전은 아동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류진혜, 1999; Mayfield, Kardash & Kivlighan Jr., 1999)은 상담자 발달에 따라 그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초심자와 숙련자를 상담자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고 각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슈퍼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상담자의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한 요소로 성찰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Nelson & Neufeldt, 1998), 앞서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슈퍼비전

은 이러한 상담자의 성찰능력 함양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하지만 Griffith와 Frieden(2000)은 숙련된 상담자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급의 수련과정에서부터 성찰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허재경, 김지현(2009)도 초급상담자를 대상으로 성찰 중심 슈퍼비전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며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아동상담자에 제공되는 슈퍼비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성찰 중심의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역전이 관리능력 증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아동상담자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들이 가진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슈퍼비전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슈퍼비전을 통해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 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김현수, 차지은, 2015)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아동상담자에 대한 슈퍼비전 개입 시에 상담자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슈퍼비전의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슈퍼비전 개입 내용을 정교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듯 아동상담자의 개인적 특징들을 고려한 전문적인 훈련 접근은 결국 상담자가 제공하는 상담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 내담자의 변화 및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담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수퍼비전 경험과 대인관계성향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동상담자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시, 역전이 관리를 위한 상담자 변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상담자의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자기보고를 통한 측정 시에, 보고자의 인지, 기억 오류 등으로 인한 보고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역전이 관리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퍼바이저의 역전이 관리에 대한 수퍼바이저의 평가 등의 보다 객관적 평가 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관계성향 척도는 각 하위변인에 따라 Cronbach's Alpha 계수가 .61~.77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소 신뢰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추후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인적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신뢰할만한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상담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담자들의 비율이 54%에 달하며, 상담 경험도 다소 편중된 분

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교육적, 경험적 요소의 차이로 인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보다 유사한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가진 아동상담자를 대상으로, 대표성을 지닌 표본을 통해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상담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대한 본 연구에서 역전이 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퍼비전 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은 상담자 개인의 대인성향적 측면에 비해 그 영향력이 다소 부족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상담자들이 수퍼비전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아동상담자들에게 필요한 수퍼비전 요소를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소영, 한미선, 황숙양 (2008). 상담자의 자기애적 특성이 상담과정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와 역전이 행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947-962.
- 강차연 (2008). 상담일반 : 미술치료 실행가의 발달수준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9(3), 905-023.
- 김경옥 (2003). 놀이치료자의 자아강도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창대, 권경인, 한영주, 손난희 (2008). 상담일반: 상담 성과를 가져오는 한국적 상담자 요인. 상담학연구, 9(3), 961-986.
- 김채연 (2011). 미술치료사의 경력이 역전이 관리능력과 역전이 활용에 미치는 영향: 내적상태인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차지은 (2015). 아동상담자의 슈퍼비전경험과 역전이 관리능력 간 관계에서 대인관계성향의 중재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4), 265-284.
-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영, 최한나 (2013). 상담자가 지각한 상담성적을 가져오는 상담자 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4(5), 2969-2986.
- 박윤원 (2017).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경력, 수퍼비전 경험에 따른 사례개념화 능력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의 차이.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현 (2010). 아동상담자의 성격유형 및 완벽주의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2), 17-30.
- 서정은, 최경환, 김창대 (2015). 뇌영상법을 활용한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 동향 (1992-2014). 상담학연구, 16(2), 27-51.
- 송가영 (2014).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가 수련경험 및 자기애와 상담 중 경험된 불안, 불안관리 및 공감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화, 정남운 (2005).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도와 실태, 만족도 연구-숙련과정에 있는 상담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17-334.
- 송재영, 이운주 (2014). 초심상담자와 경력상담자의 공감유형의 차이 분석. 상담학연구, 15(1), 125-144.
- 신교숙 (2001). 놀이치료사의 경력, 훈련 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범희 (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성향 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김영빈, 김형수, 민경화, 이일화, 최한나 (2004). 수퍼비전 회기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5(2), 263-275.
- 윤희섭, 정현희 (2012). 내담자의 애착과 전이애착, 상담자의 애착과 역전이 관리 능력이 작업동맹과 상담성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463-2482.
- 이영순 (2010). 상담일반: 초보 상담자들의 어려움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021-1035.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이정숙, 양정화 (2009).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능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7-33.

- 이지영 (2011). 미술치료사의 자기애적 특성과 대인관계 성향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 (2009). 음악치료사의 개인적 배경, 자기 효능감 및 사적 자의식이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18-39.
- 임고운, 김지현 (2008). 상담일반: 상담자 발달수준 및 역전이 활용과 상담성과. 상담학연구, 9(3), 987-1006.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재홍, 권희경 (2002). 상담자 개입의 적절성과 상담자 태도가 상담과정 및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3), 487-509.
- 차지은 (2012). 아동상담자의 역전이가 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경력·훈련 경험, 상담자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성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주, 최한나 (2013). 역전이 활용능력과 상담만 족도의 관계: 작업동맹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이해, 34(1), 75-91.
- 허재경, 김지현. (2009). 상담일반: 성찰 중심 수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의 변화과정 탐색연구. 상담학연구, 10(2), 719-740.
- Abbate, G. M. (1964). Child analysis at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2, 135-150.
- Bandura, A. (1956). Psychotherapist' anxiety level, self-insight, and psychotherapeutic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33-337.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14).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5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 Blanck, G., & Blanck, R. (1979). *Ego psychology II : Psychoanalytic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Freud, S. (1910). *The future prospects of psychoanalytic therapy*. In B. Wolstein (Ed.), *Essential Paper on Countertransference*. pp.16-24,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Friedman, S. M., & Gelso, C. J. (2000).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of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 1221-1235.
- Gabel, S., & Bemporad, J. (1994). Variations in countertransference reactions in psychotherapy with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8(1), 111-119.
- Gelso, C. J., & Carter, J. (1994). Components of the psychotherapy relationship: Their interaction and variation during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296-306.
- Gelso, C. J., Latts, M. G., Gomez, M. J., & Fassinger, R. E. (2002).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7), 861-867.

- Griffith, B., A., & Frieden, G. (2000). Facilitating reflective thinking in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2), 82-93.
- Hayes, J. A., Gelso, C. J., Van Wagoner, S. L., & Diemer, R. A. (1991). Managing countertransference: What the experts think. *Psychological Reports, 69*(1), 139-148.
- Hayes, J. A., Riker, J. R., & Ingram, K. M. (1997).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and management in brief counseling: A field study. *Psychotherapy Research, 7*(2), 145-153.
- Haynes, R., Corey, G., & Moulton, P. (2003). *Clinical supervision in the helping professions: A practical guide*. CA: Brookes/Cole-Thomson Learning.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 NY: Harper & Row.
- Holloway, E. L., & Neufeldt, S. A. (1995). Supervision: Its contributions to treatment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2), 207.
- Leary, T.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 Jung, C. G. (1964). *The state of psychotherapy today*. Collected works, Vol. 10, Civilization in trans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vlighan Jr, D. M., Gelso, C. J., Ain, S., Hummel, A. M., & Markin, R. D. (2015). The therapist, the client, and the real relationship: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analysis of treatment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2), 314-320.
- Krech, D., Crutchfield, R. S., & Ballachey, E. L. (1962). *Individual in society*. New York.: McGraw-Hill.
-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Jr, D. M.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d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s: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4), 504.
- Nelson, M. L. & Neufeldt, S. A. (1998). The pedagogy of counseling: A critical examination.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38*(2), 70-89.
- Peabody, S. A., & Gelso, C. J. (1982).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3), 240-245.
- Rasic, D. (2010). Countertransference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a forgotten concept? *Journal of the Canadi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9*(4), 249.
- Robbins, S. B., & Jolkovski, M. P. (1987). Managing Countertansference feelings: An interaction model using awareness feeling and theoretical framewor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276-282.
- Showalter, J. E. (1985). Countertransference in work with children: Review of a neglected concep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1), 40-45.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A developmental approach*. Jossey-Bass.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28*(3), 411-421.
- Waksman, J. D. (1986). The countertransference of the child analyst.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oanalysis, 13*, 405-415.
- Wampold, B. E. (2000). *Outcomes of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mpirical evidence addressing two fundamental questions*. In S. D. Brown & R. W. Lent(Ed),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pp.711-739). New York: John Wiley & Sons.
- 원고 접수일 : 2019. 09. 05
수정 원고접수일 : 2019. 10. 16
게재 결정일 : 2019. 10. 25